

3차 대유행에도 “일단 놀아보자?”…봄비는 제주공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국제공항은 연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오전 제주공항 1층 도착 대합실에는 골프백을 앞세운 관광객과 가족 단위 또는 회사 연수에 나선 단체 여행객들의 모습이 끊이지 않았다.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방문객들의 얼굴에는 여행지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묻어 나왔다.

공항 대합실 한편에 마련된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쉽게 목격됐다.

안경을 쓴 사람들은 추운 날씨 탓에 입김이 새어나와 앞이 보이지 않자 마스크로 입만 살짝 가리는 ‘입스크’를 쓰는 풍경도 자주 연출됐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공 노선은 ‘제주-김포’
코로나19 확산세가 3차 대유행이라

신규 확진자 500명 수준인데 공항 대합실 ‘복직’ 제주도, 정부·지자체에 단체 여행·연수 자제 요청 “연말까지 방역수칙 위반자에 패널티 부과 예정”

는 큰 위기에 봉착한 와중에도 ‘제주-김포’ 노선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OAG에이비이션월드와이드(OAG Aviation Worldwide) 자료에 따르면 제주-김포 노선은 11월 한 달 동안 130만명이 탑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평균 4만8000명 수준이다.

실제 지난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92만45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만381명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김포 노선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연 1700만명이 이용하며 세계에서 가장 봄비는 노선 가운데 하나

였다. 제주 방문객 숫자가 줄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 거주자로 인한 도내 n차 감염 확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진주시 이·통장협의회가 제주 단체 연수로 촉발된 감염 사례까지 나오자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항에서 만난 도민 문모(44)씨는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제주도 역시 방역단체를 격상해 대응하는 것이 맞다”며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정부·지자체에 단체 여행·연수 자제 요청

최근 경남 진주시 이·통장협의회가 제주에서 단체 연수를 진행한 뒤 확진자가 속출하자 도는 정부와 각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에 단체 연수·여

행을 자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단체 연수, 워크숍, 관공 등의 경우 단체 여행객 특성상 관련 동선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추가 감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고려에서다.

도는 현재 공공 주관 집합 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때에만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사를 축소·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방역 관리로 진행 중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주 지역 내에서 연수 또는 워크숍 등 단체 모임과 행사를 할 때에는 전 체류 동안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즉시 방문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 구상권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도 또 다시 발동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미희기자



롯데백화점 본점, 크리스마스 마켓 팝업스토어 운영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크리스마스 마켓 팝업스토어’에서 내방객들이 다양한 홈퍼티용 상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팝업스토어 운영은 내달 20일까지. (사진=롯데쇼핑 제공)

가격 오름세…철강업계 4분기 호실적 예상

철강 제품 가격 상승세…글로벌 수요 빠르게 회복될 것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4분기 매출액이 15조16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하지만 영업이익은 37.5% 급증한 766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4조6993억원, 영업이익은 980억원으로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철강업계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는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철강 유통 가격이 상승

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가격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 해석이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중국 철강유통가격은 11월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세계 1위인 중국 바오우강철은 12월 열연내수가격을 톤당 100위안 인상하고, 중국 외 지역의 철강업체들도 12월 내수가격 인상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아직 상승세이지만 제철용 연료탄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남은 4분기 실적에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제철용 연료탄 가격은 10월 초 137달러 이상 치솟았지만 최근 100달러 이하로 하락했다.

글로벌 수요 역시 빠르게 회복될 것

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세계철강협회에는 최근 내년 철강수요가 올해 대비 4.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의 실적도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 전망이다.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회복세도 긍정적이다. 김미숙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방산업 호조에 따른 가격 인상이 가능하다”며 “중국 리커창 총리가 자동차 및 백색가전 등 특정 산업군의 수요를 진작시키고 지방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냉면 등 판매류 가격 상승 동력이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철강업계는 주요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우려된다. 다우이 다시 진행되면 철강 시장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탓이다.

서선욱기자

카드업계,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공략 박차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 악화됐으나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꾸준히 성장

카드사들이 자동차할부 금융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이 악화됐으나,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서다.

2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동차 할부금융을 취급하는 5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롯데·우리)의 자동차할부금융 자산은 올해 6월말 기준 총 8조2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조4330억원보다 10.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이틀 5개 카드사의 자동차할부금융 수익은 전년 동기(1190억원)보다 11.3% 증가한 1324억원을 기록했다.

캐피탈사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은 카드업계에 새로운 수익처로 떠올랐다. 자동차 금융시장의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고

차 거래 시장은 신차의 2배 규모인 370만대 수준이지만, 중고차 매매와 연계된 금융시장은 전체 거래의 10% 수준인 5조원 내외로 추산된다. 가파른 시장 성장세에 카드사들은 다양한 자동차할부상품을 내놓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각 그룹사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금융 플랫폼인 신한은행의 ‘My Car’와 신한카드의 ‘My AUTO’를 통합해 ‘신한 My Car’를 지난달 출시했다. 그룹 내 자동차 금융상품 비교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대출한도를 보여주는 ‘통합 한도조회 서비스’와 고객에게 유리한 최적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복합대출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KB국민카드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결제 플랫폼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와 함께 차량 정보 조회, 정비사 동행 차량 점검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 카드 안전결제 서비스’를 내년 초 선보일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연간 70만대 수준으로 전체 중고차 시장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온라인 중고차 금융 서비스 ‘다이렉트 오토 중고차’, 신차 대상의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 ‘다이렉트 오토’ 등을 선보였다. 롯데카드는 모바일로 24시간 자동차 할부금융 한도를 조회하고 다이렉트 트로 신청까지 가능한 ‘다이렉트 오토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우리카드도 사업 다각화를 위한 자동차 할부금융 확대에 집중했다. 올해 6곳의 캐피탈 지점을 신설하며 현재 15개의 캐피탈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날씨는 고마운데 코로나19가…속타는 패션업계

연말모임 취소 등에 4분기 매출 ‘전전긍긍’



4분기(10~12월) 장사가 가장 중요한 패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울상이다. 연말 모임 등이 취소되는 추세에 겨울 옷이 팔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부분 패션업체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 3분기의 경우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140억원의 영업손실을 보며 전년 대비 적자로 돌아섰고, LF는 영업손실 20억원, 코오롱인더스트리FnC 부문의 영업손실 199억원을 기록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과 한섬은 영업이익이 각각 70억원, 226억원으로 이익을 남기긴 했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다. 여름이라 전통적인 비수기이기도 한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역대 최저 장마로 외출이 줄며 옷을 사는 이들이 줄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패션업체들은 겨울을 잘 나아 1년 성적표가 좋다. 4분기에 기대감을 거는 이유다. 다운자켓이나 코트 등 단가가 높은 옷들이 주력 상품인 만큼 1년 매출의 7할 가량이 겨울에 발생한다.

다행히 날씨가 돕고 있다. 10월부터 이른 추위에 방한 의류 판매가 호조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 탓에 10월 초중순 여성 의류 매출은 2.6%, 남성 의류는 32.2%

신장했다. 2~9월 누계가 각각 21.1%, 14.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전환된 것. 같은 달 아웃도어 의류 매출도 27% 신장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연말 모임을 취소하는 등 집콕 생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 패션기업 관계자는 “모임도 많고 보여줄 데가 많아 패션업계도 활성화되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얼어붙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선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패션업계 전반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주요 유통 채널이 어디인지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 가드점 위주나 백화점 입점 브랜드 등은 특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편 온라인 유통망을 탄탄히 구축한 곳들은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SI)은 자체몰인 에스아이빌리지(S.I.VILLAGE)의 성장세를 실감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의 재고 명품을 S.I.VILLAGE에서 팔면서 인지도가 높아진 면도 있다.

SI의 경우 명품패션과 해외뷰티 부문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백화점에 입점한 여성복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고전하는 추세. 이에 이 브랜드들을 고급화하거나, 온라인 전용 상품을 저렴하게 내놓는 방식으로 난관을 타개해 나가고 있다.

기동재본부

지갑단은 가계…올해 저축률 1999년 이후 최고치 될 듯

코로나19 위기 속 가계저축률 10% 안팎 상승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계가 지갑을 닫고 저축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계저축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가계저축률 상승 고착화 가능성’ 보고서(이음대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정, 이채원 조사부 작성)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비자발적 소비재

약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내 가계저축률은 1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가계저축률이 6.0%였는데 4%포인트 내외의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럴 경우 올해 가계저축률은 지난 1999년(1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가계저축률이 오르는 건 정부 지원 확대에 힘입어 가계소득이 미약하게나마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여행, 숙박, 음식 등 대면 서비스 부문에서 소비가 위축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코로